

청소년의 우울, 스트레스 대처, 강인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김 청 송[‡]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위험행동을 하는 광의의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관계에서 대처의 영향과 강인성의 역할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351명의 중고등학생(중학생이 141명, 고등학생이 210명)이었고, 사용된 검사척도는 비행척도, 우울척도, 대처척도, 그리고 강인성 척도였다. 연구결과 우울과 비행의 병발성을 확인하였고, 문제중심적 대처의 긍정적인 효과와 정서중심적 대처의 역기능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또한 탄력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강인성이 조절작용을 하고 있으나, 연령대별로 달리 작용되고 있음도 시사되었다. 이것은 초기 청소년들은 문제행동들이 누적될 기회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강인성의 보호적 기능이 잘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활교육과 등급화된 처우(graduated treatment) 제도에 시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비행의 위험지수(risk index)를 구성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에 자주 발견되는 성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부정적 특성을 자기보고 할 때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족과 교우관계 등 우울 및 비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변인들을 제외한 문제를 한계로 제시하였다.

주요어 : 비행, 병발성, 강인성, 매개효과, 중재효과.

[†] 본 연구는 “2006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청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청소년학과, 전화: 031-249-9367, E-mail: drcsk@kyonggi.ac.kr

청소년비행(delinquency)에 대한 협의의 개념은 반사회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며 이는 성인범죄 행위와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된 개념이다. 이에 비해 광의의 개념에는 정신건강의 진단 분류기준에 의한 이상행동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와 비사회적 행위인 불량행위 및 장애에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포함된다(Borum, 2000). 보다 최근에는 이를 위험행동(risk behavior)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Gullone, Moore, Moss, & Boyd, 2000). 위험행동이란 일반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법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위험행동은 부정적 결과의 발생가능성이 긍정적 결과보다 더 높고 심각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비행은 그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성격적 요인과 그가 처한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개인의 적응양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이재창, 1986), 적응양식의 결과인 개인의 독특한 행동양식이 위험하고 파괴적일 때 이를 비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청소년비행에 대한 연구도 크게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으로 대별할 수 있다. 거시적 접근은 청소년비행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며, 미시적 접근에서는 청소년비행을 개인의 신체, 심리, 행동적인 특성으로 분석하거나 가족 혹은 또래집단 등의 영향에 비중을 둔다. 일반적으로 사회구조적인 문제, 가족관계 및 동료관계 등은 비행과 같은 행동양식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키기보다는 비행에 취약한 개인적 특성을 발달시키는 환경으로 기능한다(Brooks & Reiter, 1990). 인간이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자신의 행동방식을 스스로의 욕

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볼 때 잠재적인 비행청소년의 일탈적 위험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숙경, 1994).

비행을 유발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 우울은 가장 대표적인 정서적인 변인이자 병발성(cormorbidity)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청소년들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자신의 신체에 적응하고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자아정체감과 같은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과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전략들이 불확실할 때 침울한 기분과 무기력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Cantwell & Baker, 1991). 이러한 무기력감을 야기시키는 환경에 처하면 청소년들은 이로 인해 야기되는 우울한 감정을 피하려 오히려 끊임없이 활동하고, 새로운 자극과 흥미로운 친구를 추구하곤 한다. 아니면 이와 반대로 거부를 두려워해 극히 회피적이고 위축적인 행동과 정서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Larson, Rafaelli, Richards, Ham, & Jewell, 1990). 우울한 청소년들은 위험한 문제행동들을 통하여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행동은 자극을 원하는 이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주위의 관심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일시적이거나 자신의 자존심이 향상되는 느낌을 줄 수 있다(Bemporad & Lee, 1988). 이들은 또한 자신이 직접 표현할 수 없는 우울한 생각이나 느낌으로부터 힘들고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문제행동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위에 알리고 싶어 한다(Koening, 1988).

일반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회피적이고 정서중심적인 대처행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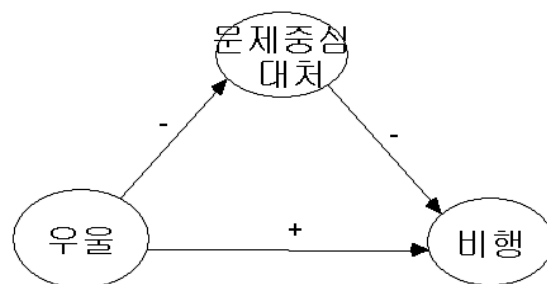
더 많이 사용하며, 문제중심적인 대처행동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Rohde, Lewinsohn, & Seeley, 1991).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부적 사건과 이로 인해 느끼는 정서가 대처양식에 따라 다르게 결과할 수 있음도 동시에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들 위험한 행동 중 우울이 차지하는 변량은 5%에서 20% 정도여서 예상과는 달리 강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Arnett, 1998). 우울한 청소년들은 항 우울적 행동(anti-depressive behaviors)을 발전시키는 경우가 다수 보고 되었다(Ebata, 1991). 또한 그들은 적극적 대처 방식 등을 사용하여 우울과 부적응적 행동의 인과적 관계성을 약화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Levitt & Selman, 1996).

여러 연구자들은 스트레스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개인적인 자원들에 주목하고 있다 (Hauser & Bowlds, 1990). 어떤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서 '탄력적'인 반면, 다른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더욱 취약해진다. Garmezy (1985)은 심리적인 탄력성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 비교적 잘 기능할 수 있는 능력으로 '높은 자기존중감', '통제에 대한 감각', '삶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부적 정서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극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Harter, 1990; Cantwell & Baker,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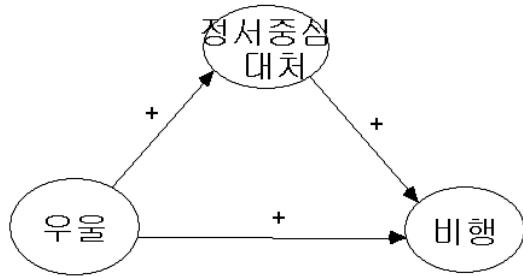
Kobasa(1982)는 스트레스 조건하에서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탄력적인 특성으로서 심리적 강인성(Hardiness)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강인성이란 스트레스적인 사건이나 그런 상황에서 개인의 지각, 평가대처의 능력을 촉진시켜 성

공적으로 해결하여 신체적 쇠약, 즉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예방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강인한 사람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control), 삶의 활동에 깊이 관여하거나 몰입할 수 있는 능력(commitment), 그리고 예상되는 변화를 위협이라기보다는 도전으로 받아들여 발전의 계기로 삼는 것(challenge)이라는 세 가지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긴장상태를 극복하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고 생활에 잘 적응해 간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반복측정한 Tang과 Hammontree(1992)의 연구에서도 강인성이 생활 스트레스를 줄이고 다양한 증상들과 위험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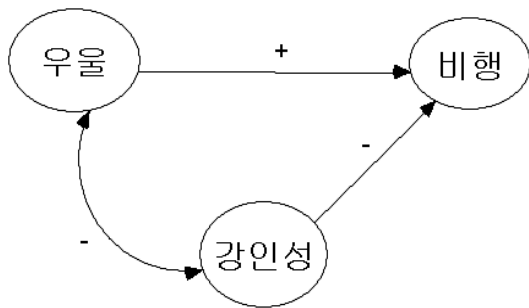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는 각각 정적 그리고 부적인 방향으로 매개(mediate)할 것이다. 강인성은 그 정도에 따라 우울이 비행에 끼치는 영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재(moderate)할 것이다. 이를 각각의 모델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모델 1. 우울과 비행에서 문제중심대처의 매개효과



모델 2. 우울과 비행에서 정서중심대처의 매개효과



모델 3. 우울과 비행에서 강인성의 중재효과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비행 개념을 채택하지 않았다. 즉, 품행장애 등의 이상행동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범죄, 축법 혹은 우범 소년이 아니라 위험행동을 하는 광의의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청소년의 비행 및 우울과의 병발성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며, 둘째, 이 관계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의 긍정적인 효과 및 정서중심적 대처의 부정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셋째, 비행을 예방하는 개인적인 탄력성 요인으로서 강인성의 기능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청소년기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의 양상이 보다 심각하고 위협해지며, 성인의 반사회적 행동과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다 (Kovach & Glickman, 1986).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중학생(청소년 초기)과 고등학생(청소년 후기) 비행의 발달적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

는 비행의 임상적 발현이나 우범화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과 인지적 책략 과정을 확인하고자 수행한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재활교육의 필요성, 일탈행위의 성격, 처우의 필요성 등을 정하는 '등급화된 처우(graduated treatment)' 제도에 시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비행의 위험지수(risk index)를 구성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2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51명의 남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학교별 분포는 중학생이 141명(남-101명, 여-40명), 그리고 고등학생이 210명(남-140명, 여-70명)이었다.

측정도구

비행척도 : 비행척도는 '불법적인 것은 아니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들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개발된 척도(곽금주, 문은영, 1995)를 사용하였다. 1점에서 5점까지로 점수화할 수 있으며 거짓말, 도둑질, 방화, 음주, 약물사용 등 반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분석 결과 가벼운 비행('어른에게 대들거나 반항해 본 적이 있다',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녀 본 적이 있다' 등) 과 심한 비행('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성폭행이나 강간을 해 본 적이 있다' 등)의 2 요인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1요인이 .87, 2요인이 .84였다.

우울척도 :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개정된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척도(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depression scale: Revised CES-D-K)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우울증상을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기 보고하는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역학-우울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캐나다 한국교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4개의 문항을 첨가한 후 청소년용에 부가된 2개의 문항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26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이다(곽금주, 문은영, 1993). 특히, 이 척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한 기분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척도에는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가치감, 무기력감, 식욕의 상실, 수면장애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거의 드물게(0점)부터 대부분(3점)의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다.

대처양식 척도 : 생활사건 스트레스 대처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Lazarus & Folkman(1984)이 개발한 대처유형 척도를 김정희(1987)가 수정 보완한 척도이다. '0=전혀 사용하지 않음'에서 '6=항상 사용'의 Likert 7점 척도이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사용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처양식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문제중심적 대처 .93, 정서중심적 대처 .88로 나타났다.

강인성 척도 : 총 30문항의 강인성 척도는

Pollock(1978)이 건강과 관련된 강인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건강관련 강인성 척도(Health Related Hardiness Scale: HRHS)를 서문자(1988)가 번안한 것을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Likert 6점 척도로 평정하며, 자기투입성(의사결정을 통제하며 일상생활에 깊이 간여하는 능력), 도전성(변화를 발전이나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능력), 통제성(스트레스 요인을 적절히 인지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신감과 숙련감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9였다.

자료분석

기술통계치를 제시한 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과 2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적용하였고, 모델 3은 중재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WIN 12v(2003)이었다.

결 과

각 측정변인간의 관계

비행(가벼운 비행, 심한 비행), 우울, 대처양식(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강인성(자기투입성, 도전성, 통제성)간의 상관계수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울과 비행은 대단히 높은 정적 상관이 있어 병발성이 확인되었다($p < .01$). 가벼운 비행과 심한 비행은 모두 문제중심적 대처에는 부적으로 그리고 정서중심적 대처

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비행은 도전성을 제외하고 강인성 요인들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문제중심적 대처는 강인성(도전성 하위 요인 제외)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정서중심적 대처는 강인성의 모든 요인들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우울->비행에서의 문제중심적 대처의 매개효과

매개효과가 입증되려면 우울과 문제중심적 대처로의 영향이 유의하고, 우울과 비행도 유의하며, 우울과 문제중심적 대처를 독립변인으로 비행을 설명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단 우울과 비행에

표 1. 각 측정 변인 간의 Pearson 적률상관(N=351)

변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가벼운 비행								
②심한비행	.453**							
③우울	.402**	.418**						
④문제중심대처	-.217**	-.186*	-.426**					
⑤정서중심대처	.111*	.332**	.475**	-.562**				
⑥자기투입성	-.236**	-.197*	-.223**	.256**	-.139*			
⑦도전성	-.107*	.097	-.087	.094	-.101*	.224*		
⑧통제성	-.257**	-.145*	-.092	.135*	-.099*	.197*	.265**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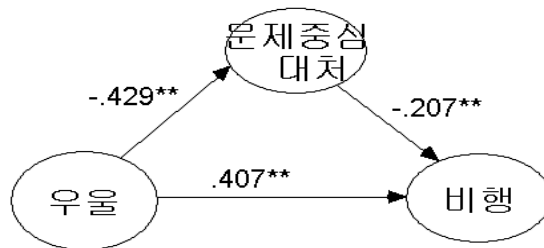


표 2. 비행에 끼치는 문제중심적 대처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변인	R ²	R ² 증가분	β
독립변인: 우울	.397		
종속변인: 문제중심적 대처			-.429**
독립변인: 우울	.366		
종속변인: 비행			.407**
독립변인: 우울		.338	.387**
문제중심적 대처		.078	-.091*
종속변인: 비행			

* $p < .05$, ** $p < .01$.

서 우울의 설명량보다 우울과 문제중심적 대처와 비행에서의 우울의 설명량이 작아야 한다(Baron & Kenny, 1986).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문제중심적 대처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제중심적 대처는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울->비행에서의 정서중심적 대처의 매개효과

표 3에는 정서중심적 대처의 매개효과의 검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서중심적 대처 역시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울과 강인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강인성이 중재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것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지만 중재변인이 독립변인과 작용하여 종속변인의 변화량을 좌우하는 관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강인성이 조절하면서 비행의 양상을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우울과 강인성을 투입한 후에 이 둘 간의 교차 항을 투입하고 종속변인인 비행을 설명하는 변량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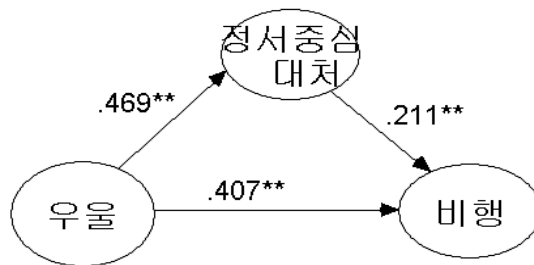


표 3. 비행에 끼치는 정서중심적 대처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변인	R ²	R ² 증가분	β
독립변인: 우울	.413		.469**
종속변인: 정서중심적 대처			
독립변인: 우울	.366		.407**
종속변인: 비행			
독립변인: 우울		.351	.399**
정서중심적 대처		.068	.080*
종속변인: 비행			

*p<.05, **p<.01.

표 4에서 보듯이 우울은 비행을 36.6% 예측하며, 강인성은 비행을 4.5% 예측하며, 우울과 강인성의 상호작용이 비행을 1.5% 예측하였다. 즉, 우울과 강인성의 교차 항을 투입했을 때 R² 증가분이 비행을 유의하게 설명하여($\beta = -.046, p < .05$)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연령 대 별 비교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 모델을 청소년 전기(중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적용한 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중학생의(141명)의 경우, 강인성의 중재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우울×강인성의 $\beta = -.027, p > .05$).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탄력성 요인인 강인성은 연령대 별로 달리 작용되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비행을 임상적인 극단이나 범법적인 기준에서 구분하지 않고 광의의 개념인 문제행동(risk behavior)으로서 비행을 정의하였다. 우울한 감정(depressive mood) 역시 청소년기에 매우 공통적이다(Cantwell & Baker, 1991). 따라서 우울과 비행은 질적 구분보다는 양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본 연구에서도 이를 개념화한 척도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청소년의 비행 및 우울과의 병발성 문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울과 비행은 대단히 높은 정적상관이 있어 병발성이 확인되었다($p < .01$). 일반적으로 우울은 내재화된(Internalized) 문제이고, 비행은 외현화된(externalized) 문제로 언급되지만, 두 가지 문제들은 동시에 혹은 순환적으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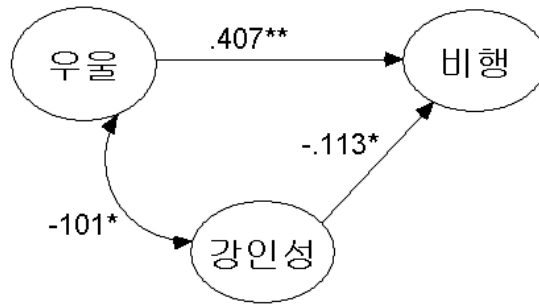


표 4. 비행에 대한 우울과 강인성의 중재적 회귀분석 결과

투입순서	독립변인	R ²	R ² 증가분	F	β
1	우울(A)	.366	.366	88.27**	.407**
2	강인성(B)	.411	.045	6.73*	-.101*
3	A × B	.426	.015	4.02*	-.046*

** $p < .01$

한다는 점에서 구분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Donovan, Jessor & Costa, 1991). 보다 최근에는 위협요인들이 누적된(cumulative) 정도로 예측을 과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Steinhausen & Winkler, 2001) 본 연구에서 확인된 상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하는 지표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2와 표3에서 제시된 바 있듯이, 우울한 청소년이 문제중심적 대처를 할 경우 비행이 감소하며, 정서중심적 대처를 할 경우 비행이 증가하였다.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제3의 변인이 두 변인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이다. 즉, 독립변인이 중간의 단계 혹은 과정에 의해 단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우울이 비행에 끼치는 직접적인 효과도 가능하지만 대처가 작용하면서 가중된 효과가 추가되는 관계이다. 문제중심적 대처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중심적 대처를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물질사용의 빈도가 현저하게 낮고, 자기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연구(Ebata, 1991)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정서중심적 대처를 자주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비행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Hauser와 Bowels(1990)도 회피적 혹은 정서중심적 대처를 자주 사용할 경우 정서장애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의 통제를 초월하거나 압도적일 때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벗어나서 초연한 것이 오히려 문제의 점차적인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Ebata, 1991) 문제중심적 대처는 바람직하고, 정서중심적 대처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분법적 구

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귀인처럼 대처방식도 인지적 전략이라는 주장과(Mommersteeg, 2006) 성격변인이라는 주장(Arnett, 1998)이 모두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후자의 주장을 따른다면 대처는 교육적 중재가 다소 회의적인 안정된 개인차 변인으로 간주해야 한다.

강인성은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안정된 개인차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강인성은 부정적인 우울 정서가 비행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도 강인성은 우울의 효과를 완충하고 비행으로의 행동화를 조절(moderate)하는 기능을 확인하였다(표 4). 그러나 중학생들은 강인성의 중재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우울×강인성의 $Beta = -.027, p > .05$). 이것은 강인성과 같이 안정된 개인 내적 변인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후기 청소년기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Tang & Hammontree, 1992). 초기 청소년들이 후기 청소년이나 성인기에서 발견되는 침울한 기분이나, 무기력감등을 적게 경험한다(Downey & Coyne, 1990). 이를 감안한다면 초기 청소년들은 문제행동들이 누적될 기회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강인성의 보호적 기능이 잘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광의의 비행개념을 적용해 우울과 비행의 병발성을 확인하였고, 둘째, 문제중심적 대처의 긍정적인 효과와 정서중심적 대처의 역기능적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셋째, 강인성의 조절작용을 통해 탄력성의 기능을 확인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비행의 연령대별 변화양상도 확인하는 부가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성인기까지 장애를 보인다는 점(Kazdin, 1993)에서 적절

한 평가 및 예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내적 자원의 활용과 개입의 효과를 세분화하는 정보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표집의 문제로 성차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청소년기 초기보다는 후기에, 소년보다는 소녀에게서 우울이 더 많다(Peterson, Sarigiani & Kennedy, 1991). 이것은 호르몬의 변화 등 생물학적 변화와 남성 우위의 사회를 실감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Peterson, Sarigiani & Kennedy, 1991). 그리고 본 연구 역시 자기보고식 자료의 기본적 한계가 있었다. 특히 비행과 같이 부정적인 특징을 회상하게 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려는 욕구 등으로 인해 기억의 왜곡이 심각할 수 있다(McCord, 1990). 또한 개인이 속한 집단적인 특성 역시 영향을 미쳐(Krisberg, Schwartz, Fishman, Eiskovits, & Guttman, 1986) 집단에 따라 문제행동을 다르게 정의했을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울과 비행의 병발성이 시사하듯이 우울에서 비행으로 가는 인과성 이외에도 역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모델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족과 교우관계 등 우울 및 비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변인들을 제외한 것이어서 결과를 해석할 때 제한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숙경 (1994). MBTI에 나타난 성격유형과 잠재적 비행 경향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곽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6(2), 29-43.
- 이재창 (1986). 청소년 행동성향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 연합회.
- Arnett, J. (1998). Risk behavior and family role transitions during the twent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3, 301-320.
- Baron, R. M.,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mporad, J. R., & Lee, K. W. (1988). Affective disorders. In C. J. Krestenbaum & D. T. Williams (Eds.), *Handbook of Clinical assess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p. 626-649).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 Borum, R. (2000). Assessing violence risk among you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 1263-1288.
- Brooks, G. J., & Reiter, E. (1990). The role of pubertal processes. In S. Feldman & G.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16-23).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Cantwell, D., & Baker, L. (1991). Manifestations of depressive affect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121-133.
- Donovan, J. E., Jessor, R., & Costa, F. M. (1991). Adolescent health behavior and conventionality-unconventionality : An extension of problem-behavior theory. *Health Psychology*, 10, 52-61.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ive parents : An integrative review.

-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 Ebata, A. T. (1991). *Stress and coping in adolescence*, *Encyclopedia of adolescence* (Vol.2, pp.1100-1106). New York : Garland.
- Garnezy, N. (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 The re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 213-233.
- Gullone, E., Moore, S., Moss, S., & Boyd, C. (2000). The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2), 231-250.
- Harter, S. (1990). *Self and identity development*.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Hauser, S. T., & Bowlds, M. K. (1990). *Stress, coping, and adaptation*.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Kazdin, A. E. (1993). Adolescent mental health :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American Psychologist*, 48(2), 127-141.
- Kobasa, S. (1982). Commitment and coping in stress among lawy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4), 707-717.
- Koenig, L. J. (1988). Self-image of emotionally disturbe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111-126.
- Kovach, J. A., & Glickman, N. T. (1986). Levels and psychosocial correlates of adolescent drug us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5, 61-78.
- Krisberg, B., Schwartz, I., Fishman, G., Eiskovits, Z., & Guttman, E. (1986). The incarceration of minority youth,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 Larson, R. W., Raffaelli, M., Richards, M. H., Ham, M., & Jewell, L. (1990). Ecology of depression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 A profile of daily states and activit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92-102.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 Levitt, M. Z., & Selman, R. L. (1996). *The personal meaning of risk behavior: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friendship and fighting in early adolescence*,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Associates, Publishers, New Jersey.
- McCord, J. (1990). *Problem behavior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Mommersteeg, P. M. (2006). A longitudinal study on cortisol and complaint reduction in burnout. *Psychoneuroendocrinology*, 31(7), 793-804.
- Peterson, A. C., Sarigiani, P. A., & Kennedy, R. E. (1991). Adolescent depression : Why more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47-271.
- Rohde, P., Lewinsohn, P., & Seeley, J. R. (1991). Comorbidity of unipolar depression : Comorbidity with other mental disorders in adolescents and adul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214-222.
- Steinhausen, H., & Winkler, C. (2001). Risk, compensatory,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59-280.
- Tang, T. L., & Hammontree, M. L. (1992). The effects of hardiness, police stress, and life stress on police officers' illness and absenteeism. *Public Personnel Management*, 21(4), 493-510.

논문접수일: 2007년 7월 11일

게재결정일: 2007년 7월 30일

The Effect of Depression, Stress coping, and Hardiness on Delinquency in Adolescents

Chung Song Kim

Department of Youth Science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stress coping and hardiness in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delinquency through mediate and moderate modeling. To identify the effects, sample of 35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141 middle and 210 high) completed Delinquency Scale, CES-D-K, Coping Scale(Lazarus & Folkman) and Health Related Hardiness Scale(HRHS).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there was a comorbidity between depression and delinquency. Second, it was assumed that depression would be mediated with delinquency by coping and moderate with delinquency by hardiness. Third, multi group analysis showed there was a discrepancy between early and late adolescents on hardiness functioning. This findings suggest that the system of graduated treatment might be effective for delinquent adolescents. Finally, limitation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s of gender, skewed self report and environment variables of delinquency.

Keywords : delinquency, comorbidity, hardiness, mediate effect, moderate effect